

일 주 문



승려시집 작품 모집 승려시인회 회장 진관 스님은 11월 9일까지 승려 시인들을 대상으로 <승려시집 6권>에 게재할 작품을 모집한다. (02)737-7872



금동삼존불 점안법회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11월 10일 오전 10시 열린선원 법당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금동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관세음보살상 봉안법회 '세계일화 능력성장도량' 능엄선원 능화사 주지 혜강 스님은 10월 27일 지장보살상·관세음보살상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반송 원오사, 삼성각 낙성식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10월 27일 삼성각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울산불교방송 사장에 오심 스님



울산불교방송 3대 사장에 오심 스님(울산 월봉사 주지)이 임명됐다. 오심 스님의 임기는 2016년 6월 22일 까지로 취임식은 12월 16일 오후6시 울산MBC 컨벤션에서 열린다. 신종일 기자

18회 명원차문화대상 배래부·윤석관 회장



제18회 국제 명원차 문화대상에 공로상 배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학술상 윤석관 죽로다 문화회 회장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군불총 11대 회장에 김현집 합참 차장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 제11대 회장에 김현집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추대됐다. 김현집 회장은 육사 36기로 육군 5군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 차장, 제28보병사단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주간불교 사무실 이전

주간불교는 두산 위브 파빌리온 1038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대중과 거리 좁혀 최고의 연수시설로”

시설명 개명한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 스님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 구현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로 고정화하기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화산 전통문화원의 명칭을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 스님은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단 연수시설인 전통불교문화원의 명칭을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원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9월 11일 중무회의에서 ‘한국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7월 23일 전통불교문화원은 9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문화연수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역시 연수원장으로 호칭을 바꿨다.

스님은 명칭 변경으로 기업체와 단체 등

지난 9월 전통불교문화원을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바뀌 외부단체 시설 이용률 높여

일반 이용률이 높아지고, 불교문화프로그램 연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외부 단체의 경우 연수 유치 과정에서 종교색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개원 후 4년 동안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

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했다.

“세종시로 정부 청사와 산하 기관이 옮겨오면서 워크숍과 각종 회의를 할 장소를 찾는 문의가 많지만, 특정 종교 명칭으로 인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종교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종교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교육장 등 주변 환경에서 불교적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연수원은 명칭 변경으로 내년 이용객 목표를 최대 4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내년 수입액 역시 2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수 매출 확대를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인문과 문화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부터 불교적 명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단 연수를 무료로 전환하고, 종단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불교’라는 명칭은 없어지지만, 불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대표 연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신종일 기자 mot79@hyunbul.com

정우 스님,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연임

10월 29일 동문회 정기총회서... 해인승가상 시상식도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에 정우 스님(조계종 군종교구장·사진)이 연임됐다.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0월 29일 합천 해인사 관음전에서 ‘2013년도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승인의 건, 제17대 임원 선출의 건, 동문회 활성화 방안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 동참 동문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정우 스님의 연임에 결의했으며, 정우 스님은 동문회 발전을 위해 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해인동문회 제17대 총동문회장에 재임된 정우 스님은 “해인동문회장에 연임하게 되어 선후배 스님께 감사하다”며 “열심히 정진해 해인동문의 응집된 기운들이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각 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는 동문을 선정해 해인승가상을 전달했다. 해인승가상 대상에는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선정됐으며, 학술부문에 중



립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복지부문에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포교부문에 성원 스님(약천사 주지)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2013년도 장학금 57명에게 5,400만 원과 해인승가대학 교수 연구비로 5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혜명당 무진장 스님 49재 봉행

10월 27일 조계사서... 사부대중 1천여 명 참석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49재가 10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로의원 도문스님, 정관스님, 세민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백양사 수좌 지선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등 60여명 스님

을 포함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 생각을 일으키니 해와 달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또 한 생각을 쉬니 우주가 생기더라. 낳고 죽음이 오는 원리”라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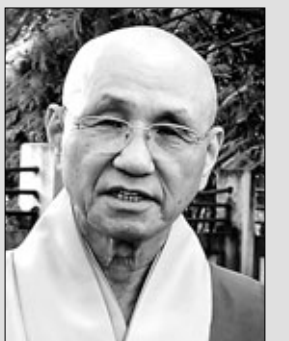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법향은 수많은 중생들에게 고귀한 불법 인연을 맺어 주셨다. 이제 큰스님의 법문



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여기니 불자들은 가슴 깊은 아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추모했다. 신종일 기자

제11회 대원상 대상에 월주 스님

제11회 대원상(포교대상 부문) 출가부문 대상 수상자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2013년 10월 29일~30일 제11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 출가 부문에는 대상에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선정·추대했고 특별상에는 풍경소리(대표 혜자)를, 장려상에는 남장 스님(김갑영 군법사, 법용사 주지)을 선정했다.

제가 부문에는 대상 수상자는 없으며, 특별상에 법보신문사(대표 남배현)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를, 장려상에 현익재 대불연총동문회 고문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불교진흥원은 “월주 스님은 불교계 원로로 불교 발전을 향한 원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경제, 통일 등 포교 일선에서 사회활동에 불교계의 참여를 주도해 불교 위상을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콘텐츠대상에는 대상 수상작이 없으며, 장려상에 사유진 씨의 다큐멘터리 ‘Peace in Tibet’와 청보리회의 다큐멘터리 ‘대얼반’ (대석가 10부작 중 제10부)을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19일(화) 오후 3시 다보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불교조계종 여주 백화사 창종법회



여주시 승격을 축하하는 ‘보금산 백화사 산사음악회’가 10월 27일 오후 1시 백화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불자 가수 이지영 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백화사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장미화, 진 시몬, 한세일과 밸런트 정영규, 소리꾼 자명스님 등이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청소년문화예술제



의성 고운사가 10월 26일 제 6회 ‘천년 출향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제’를 경내에서 실시했다. 대중 7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예술제에는 백일장(문부·산부), 사생대회(주제: 풍경)에 이어 음악공연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고운사는 이날 행사에서 사찰음식 도시락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증 안 내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증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당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